

광주시향 클래식 본고장 데뷔 무대 호평



지난 25일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오스트리아 린츠 브루크너 하우스에서 공연하고 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첫 유럽투어 콘서트 마무리

지난 25일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의 유럽투어 콘서트가 열린 오스트리아 린츠의 브루크너 하우스는 공연 전부터 수많은 관객들로 붐볐다. 김홍재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첫곡 '아리랑 판타지'가 연주된 후 '브라보'가 터져나오는 등 광주시향은 아름다운 선율을 유럽 관객들에게 선보이며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또 다이나믹한 구성이 인상적인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을 광주시향만의 색깔로 연주, 박수 갈채를 받았다.

상임지휘자 김홍재가 이끄는 광주시향은 첫 유럽투어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광주시향은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두 차례의 연주회를 이어가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광주시향은 20일 체코 프라하의 스메타나홀에서, 25일에는 오스트리아 린츠의 브루크너하우스에서 공연을 가졌다.

이번 유럽투어에서 광주시향은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으로 첫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은 김홍재 상임지휘자가 1978년 도쿄 교향악단의 연주로 일본에서 초연한 작품이다. '현지인들에게 한국 정서의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김홍재 지휘자가 특별히 준비했다.

이어 고틀리프 알리쉬의 연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 C장조, 작품 58'을 선보였다. 공연은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 F단조 작품 36'으로 마무리됐다.

광주시향은 첫 번째 공연을 선보인 체코 프라하 시민회관의 스메타나홀은 1912년 문을 연 대표적인 아르누보 양식의 건물이다. 1259석을 갖춘 이곳은 프라하 시민들의 성금과 알폰소 무하, 카렐 슈필라, 안 프라이슬러 등 당시 체코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동참으로 만들어졌다.

체코 프라하·오스트리아 린츠

두차례 연주회...가능성 열어

"아리랑 환상곡·도라지 타령 등

광주시향만의 감정·색깔 인상적"

스메타나 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홀이란 명성답게 유리 돔 천장과 하얀 바탕위에 푸른빛의 창문, 조각과 그림, 스테인드글라스 장식으로 가득 차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르누보 양식 건축물로 손꼽히는 스메타나홀은 프라하 클래식 음악을 주도하고 있는 홀로 매년 5월마다 열리는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제'의 메인극장이기도 하다.

20일 열린 공연에는 핀란드,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 체코 주재 12개 국가의 대사가 공연장을 찾았으며 1200여 석의 홀은 관객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이 날 공연장에서 만난 현지인 페트라 스키포바씨는 "클래식 음악에 밝은 유럽 관객들을 만족시키는 일이 쉽지 않다"며 "하지만 광주시향은 인상적인 공연을 선보였고 특히 교향곡 2악장의 오보에 솔로는 스메타나홀과 완벽한 공명을 선보여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럽의 음악가들도 공연을 찾아 찬사를 보내왔다. 야나체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 하이코 마티아스 피스터씨는 "광주시향만의 감정과 색깔이 분명한 공연이었다. 특히 현악기 소리가 무척 아름답고 특유의 힘과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며 "광주시향과 김홍재 지휘자 해석의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이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25일 공연을 펼친 브루크너하우스는 오스트리아



김홍재 상임지휘자

북부의 린츠(Linz)에 위치해 있다. 브루크너 하우스는 린츠가 배출한 위대한 작곡가 안톤 브루크너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74년에 건립됐다. 공기상태와 음향의 잔향 등을 과학적으로 고려한 현대적 홀로 세계 최고의 공연장 중 하나로 꼽히는 브루크너하우스에서는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 바이올리니스트 고토 미도리 등의 음악가들이 공연한 바 있다.

브루크너하우스를 찾은 교포 신민자(여·60·오스트리아 린츠)씨는 "한국을 떠나 오스트리아에 정착한 지 30년째다. 광주시향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들과 함께 공연장을 찾았다"며 "첫 곡인 아리랑과 마지막 무대인 도라지 타령을 들으니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 밀려왔다"고 감동을 전했다.

클래식의 본고장인 유럽의 클래식 전용 홀에서 한국 지방 교향악단이 객석을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만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이 공연장을 찾았다. 하지만 1200~1400여석의 객석을 가득 채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김홍재 상임지휘자는 "공연이 잘 마무리돼 기쁘고 감사하다. 해외공연을 통해 광주시향 단원들이 한 단계 성장한 것 같다"며 "유럽투어의 경험으로 한국에서 더욱 좋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라하·린츠=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이현숙 개인전

11월 1일까지

무등갤러리



▶'Dream Village'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꿈꾸는 세상이 그녀의 그림 속에 있다. 어쩌면 너무 '그림같은' 풍경이어서 현실감이 없어 보이지만 그리기에 더 꿈꾸게 되는 지도 모른다.

수채화가 이현숙 개인전이 오는 11월 1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포유(Fou You)'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예전 그림부터 근작까지 다양하게 전시돼 작품 세계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2017년 근작들 중 'Dream village' 시리즈는 우리가 몸담고 있지만 항상 만족할 수만은 없는 삶의 공간을 돌아보게 만든다. 따뜻하고 포근한

색감으로 풀어낸 화면 속엔 많은 이들의 안식처인 집들과 가계가 보이고, 화사한 꽃과 별이 어우러져 행복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Serenade of the city' 시리즈와 화려한 꽃을 한가득 싣고 달리는 자동차가 등장하는 작품들 역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꽃, 과일, 풍경 등 사실적인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광주시범대 미술교육학위를 졸업한 이씨는 5차례 개인전과 부스전을 열었으며 다양한 단체전에 참여해왔다. 한울회, 사생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오는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갤러리 라메르에서 전시회를 이어간다. 문의 062-236-25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선현옥 개인전 '봄동을 사유하다' 11월 1일까지 갤러리S

눈 내리는 혹독한 겨울을 모두 겪어낸 '봄동'은 사람의 눈을 확 사로잡지는 않지만, 봄이 되면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온다. 그런 봄동에 오랫동안 '눈길'을 준 이가 있다. 지난 2000년부터 '봄동'을 화폭에 담아온 선현옥 작가다. 선 작가가 '봄동을 사유하다'를 주제로 오는 11월 1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갤러리S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올해 전시에서 봄동은 자유로움을 얻었다. 춤추며 '한뫼으로' 피어 있는 모습과 함께 이파리 하나 하나가 유영하듯 흘러다니며 자유롭게 여행한다. 여기에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망초'가 함께 등장해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든다.

솔한 자연을 담고 있을 엄마의 도마에,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을 책 속에 놓여진 봄동은 인상적이다. 망초 무리와 어우러지고, 물 속을 자유롭게 노니는 잉어와 함께 한 봄동은 한없이 자유롭다.

들로, 산으로 사색을 다닐 때마다 만난 봄동은 작가에게 '나누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인생'과 접목해 볼 수 있었고 그의 평생의 소재가 되었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을 수료한 선 작가는 지금까지 5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광



'outing2017-4'

주전남여성작가회 등 다양한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10-7340-0113 /김미은기자 mekim@

광주시립사진전시관 내일 이경률 교수 초청 강연

이경률 (사진평론가) 중앙대 교수가 광주시립 사진전시관 사진미학강좌 '명 저서로 만난 사진 예술'에서 강연한다.

31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광주문예회관 내)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 이 교수는 필립 뒤바의 '사진적 행위'를 토대로 강연을 진행한다. 프랑스 투르대학 예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

학 예술사 석사 및 팜테옹 소르본 파리 제1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교수는 '사진의 움직임', '현대미술 사진과 기억' 등 이론서를 집필했다.

'사진적 행위'는 전 세계 사진,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 이미지 영역에서 가장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책들 중 하나로 꼽힌다. 무료 참여. 문의 062-613-540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이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 100,000 / 디럭스룸 ₩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